



감사와 새로운 부흥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손다니엘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참된 예배자 (눅 15: 11-24)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주께 가까이"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9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참된 위로자” (누가복음 7:11-16)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는 일찍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은 외아들이 희망이요 삶의 이유였을텐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러한 비극과 슬픔을 이 여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어느 누구도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람들이 가엾게 여긴 것과는 다른,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 라는 말씀은 말로 끝나는 위로의 말이 아닌 그 과부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과부의 아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의 주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 장에도 가버나움 동네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향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 장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 돌 무덤에 장사한지 삼일이 지났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진정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참으로 위로해 주며, 마음을 기쁨과 평강으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난관, 상처와 슬픔을 만날 때 어쩔 줄 몰라 죄성을 따라 원망, 탓, 비난, 좌절, 고통, 낙심,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과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과 위로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이 땅위의 험한 길을 기쁨과 감사,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운영 위원회 - 10 월 11 일 주일 오후에

운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 장례 예배 - 심영민 집사님의 어머니의

장례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발인예배 : 10 월 13 일 화요일 오전 10 시

하관예배 : 오후 12 시

장소 : Skylawn Funeral Home (888 Lifemark Rd,
Half Moon Bay, CA 94019)

4. 제직 수양회 - 11 월 7 일 토요일 오후에 제직

수양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10 월	각기관 월례회	10 월 25 일 (주일)
11 월	제직 수양회	11 월 7 일(토요일)
11 월	추수 감사절	11 월 7 일(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0/11	10/18	10/25	11/01
대표기도	손다니엘	손 정임	심 영민	유 경애
헌화성도	손 정임	김 인수	유 경주	성미숙/서영희
봉사당번	사랑구역	믿음구역	각기관/월례회	믿음구역

예배 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 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 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 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 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김 영란	510-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한 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	12 주
성경 통독방	52 주

선택이 아닌 순종

4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쫓아 다녔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었고 하나는 무리라고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따라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 싶을 때 찾아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먹을 것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고, 가고 싶을 때만 골라서 쫓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쁘면 미룰 수 있었고, 귀찮으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로운 말씀은 받고,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고개를 내 저었습니다. 내 원함을 위해 찾아왔고, 내 원함을 채움 받지 못하자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며 쫓아 왔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예수님께 모두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오늘은 쉬고 싶어도, 때론 꾀를 부리고 싶어 했어도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 받고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란 본인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듯이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원하시지 않고 제자를 원하십니다. 무리는 비록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도 먹은 사람들이었지만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과 행동들은 보였지만 구원 받았고 결국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소수입니다. 참된 구원 받은 성도는 제자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절대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말씀도, 신앙도 내 기호, 내 기분, 내 상황, 내 편함대로 선택하듯이 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선택의 자리로 바꿔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과 제자는 선택이 아닌 순종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후 1 시 <i>1:00 P.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